

<동아-윤정미 장학금 해외탐방 분야 활동 보고서>

60210190 영어영문학과 이연정

2023년 8월 6일부터 27일까지 약 3주간 영국, 프랑스, 스위스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가는 거라, 설렘과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숙박부터 여행 계획까지 준비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출발 전까지도, 그리고 여행을 하고 있는 중에도 실감 나지 않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니 인생에서 가장 좋았던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3주였지만 여행 과정 속에서 '나'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먼 국가의 여행에 대한 장벽을 허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유럽여행을 통해 혼자서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용기를 얻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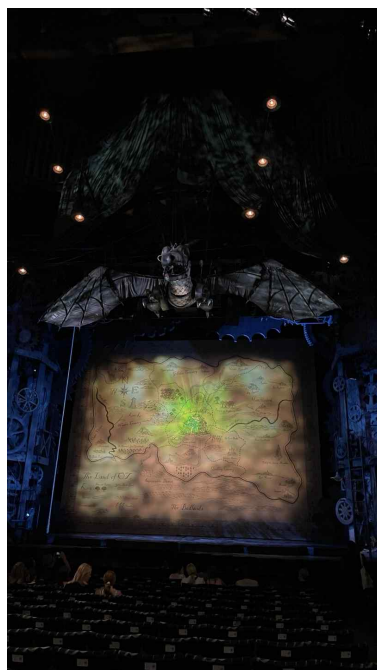
2023.08.06. ~ 2023.08.13. : 영국 런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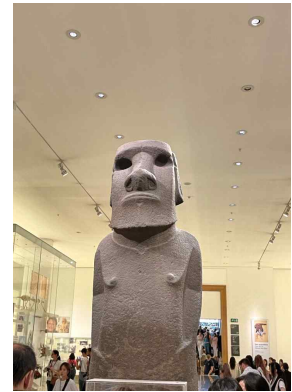
영미문화 수업에서 예시로 나왔던 근위병 교대식을 보고 왔습니다. 근위병은 절대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배웠는데, Horse Guards Parade 앞 말을 타고 있던 근위병이 실제로 미동도 없는 모습을 보고 신기했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다 본 군악대 근위병도 보았는데, 악기를 연주하는 중에도 발 각도를 서로 맞추며 걷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영국식 숙소에서 머물며 주거 문화를 느낄 수 있었고, 실제로 현지인이 거주하는 곳이었기에 영국인과 대화할 기회가 많아 좋았습니다. 영어 회화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대화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또한, 대화를 통해 영어음성음운론에서 배운 영국과 미국 영어 발음 차이를 느낄 수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t' 발음을 정확히 하는 것과 'r' 발음을 거의 하지 않는 것을 실제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전에는 외국인과 말하는 것 자체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두려움을 허물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여행 동안 길을 모르거나 궁금한 것이 있을 때 주저하지 않고 질문하고, 먼저 말을 걸기도 하였습니다.



'위키드'라는 뮤지컬도 감상하였는데, 한국과 뮤지컬 관람 문화가 다른 것을 느끼고 올 수 있었습니다. 식음료 섭취가 가능한 것 등, 우리나라보다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영어를 전부 알아듣는 것은 어려웠지만, 영어로 뮤지컬을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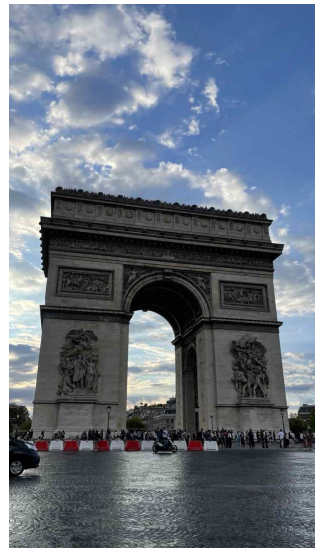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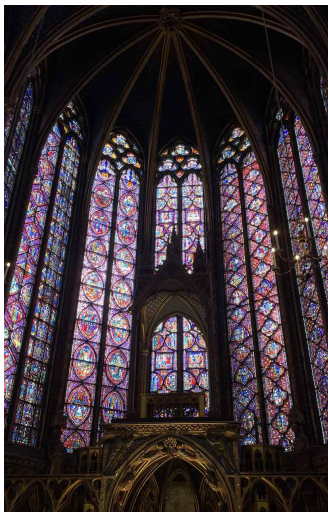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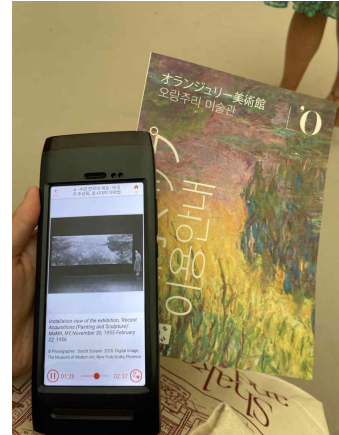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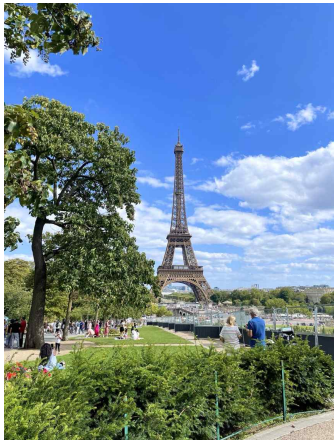


영국박물관, 내셔널갤러리, 자연사박물관을 방문하여 다양한 작품을 감상하였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여러 국가의 작품을 보고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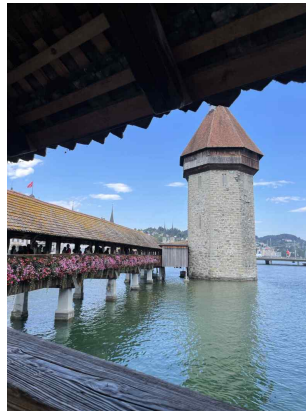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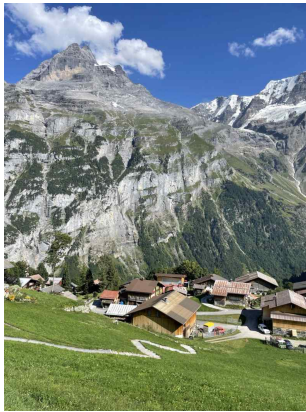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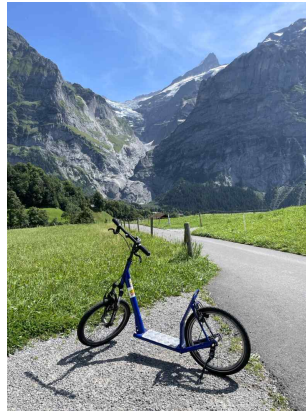


'세븐시스터즈'라는 해안 절벽을 보고 왔습니다. 비가 자주 오는 런던 날씨 탓에 흐리고 추운 날씨에 방문하였지만, 흐린 날씨 속에서도 아름다운 전경을 감상할 수 있었고 비 오는 날씨도 런던의 날씨 특징을 느끼고 올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2023.08.14. ~ 2023.08.17. : 프랑스 파리



2023.08.15. ~ 2023.08.26. : 스위스



파리와 스위스를 여행하면서 만난 한국인분들에게 혼자 여행 왔다는 것에 많은 응원을 받으며 다녔습니다. 또한, 스위스에서 처음 해보는 액티비티, 하이킹은 재미있는 추억으로 남았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전경에 감동하기도 했습니다. 하이킹하며 만난 외국인과 친구가 된 것, 길 잃어버린 외국인을 도와준 것, 나라별로 현지인이 사는 곳에 투숙하며 지낸 것 등 즐겁고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다른 유럽 국가도 탐방하고 싶은 계기가 생겼고, 먼 국가 방문의 두려움을 없앨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과의 대화에도 이전보다는 자신감이 생겼으며 회화 공부의

동기 부여가 되었습니다. 또한, 평소에 관심 없었던 사진과 미술에 흥미가 생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제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알게 되어 저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삶의 원동력으로 이 기억을 자주 떠올릴 것 같습니다.